

開 會 辭

李 泰 旭

〈西江大東亞研究所長〉

國內外 學者 그리고 來賓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年末이 가까워 바쁘신 날을 보내실텐데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國內外 碩學들을 모시고 서강대학교 東亞研究所가 韓國 國際文化協會와 공동으로 “西洋 民族主義의 受容(I)”이라는 主題로 第5次 韓·中·日 政治文化比較 國際學術會議을 갖게 되어 대단히 기쁩니다.

本 國際學術會議의 目的과 趣旨는 亞細亞의 傳統社會가 近代化 過程에서 西洋의 主要 價値, 理念을 受容하는데 있어서 겪는 정신적, 文化적 갈등을 분석하고 그리고 各國의 調和 努力을 比較, 分析함으로써 韓國, 中國, 日本등 亞細亞 國家들의 정치문화의 正體性을 규명하고, 한걸음 더 나아가서 닥아오는 21 세기의 亞細亞 政治文化創造의 기틀을 마련해 보자는데 있습니다. 趣旨에 따라 本 會議의 副題를 “亞細亞 民族主義와의 葛藤과 調和”라고 정하였습니다.

本 會議의 目的에 따라 그동안 1985년 以來 벌써 4 차례 會議를 가졌습니다. 第1次 및 2次 會議에서는 “亞細亞에서의 共產主義 受容” 그리고 第3次 및 4次 會議에서는 “亞細亞에서의 民主主義 受容”이란 主題로 開催하여 많은 國內外 저명석학들께서 참석하여 論文發表와 討論을 해주셔서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번 會議는 아세아에서의 西洋의 受容研究 중에서 “西洋民族主義의 受容”을 主題로 採擇하였습니다.

最近 國際社會에서 새로운 和解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으며 그리고 開放

과 交流를 통한 國際化 時代가 급속히 진전 되고 있습니다. 그런중에서도 다른 한편 各國은 自己의 固有한 傳統文化와 價値觀을 찾으려는 노력이 동시에 일고 있습니다. 특히 分斷國家들 內部에서는 民族主義에 바탕을 두고 對立을 극복하여 과거부터 내려오는 傳統文化의 배경으로 統一의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와 현재 韓國, 中國, 日本 등에서 내세우는 民族主義에 대한 내용을 규명하고 앞으로 國際化 時代에 어떻게 調和 되어 갈 것인지에 대한 비교 분석이 時期的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이번 회의에서 民族主義에 대한 국내의 전문가 7명을 모시고 오늘과 내일 이틀간(11월 30일~12월 1일)에 걸쳐 主題에 대한 論文을 발표하고 또한 많은 학자분들과 함께 토론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會議의 원래 趣旨를 理解하시고 第1次會議 이후 이번 第5次會議까지 계속 후원을 아끼지 아니하신 韓國國際文化協會 金聖鎭 會長께 深甚한 感謝의 말씀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이 長期 研究事業에 계속 支援해 주시기를 기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會議 참석을 위해 멀리 해외서 오신 日本, 臺灣, 香港의 4분 學者와 이 會議에 성의껏 참가해 주신 여러 國內 學者분들께도 感謝 말씀드립니다. 또한 東亞研究所가 소속하고 있는 西江 大學校를 代表하여 致辭를 해주시는 車河淳 副總長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번 會議에서 좋은 討論을 벌여 주실것을 期待하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항상 幸運이 있으시기를 祈願합니다. 感謝합니다.

1989. 11. 30